東亞日報
本紙六面
發行所 株式會社 東亞日報社

第二軍縮問題

一

一般의推測으로는 米國大統領『쿠리지』氏가다시第二軍備縮少會議를成立식히기에 努力하고그効果로 以前에作定된軍縮의缺欠을補充하야서 問題만한補助艦競爭도 避하리라고하던바 最近에 이르러서 米國에서는別노이에對한意見發表를하엿슬뿐아니라 國際聯盟會議에서議論되는軍縮問題에外지 贊成不可能으로보는듯하다 그理由는 이軍縮會議에 參加國의參加하지아니하면 陸上軍備를 縮少할수업슬뿐아니라 佛國側에서는現下『모로코』와『시리아』의 反亂을鎭定하는必要上 그陸軍을縮少하기어려우리라는것을 指摘한다고傳하던바 果然國際聯盟側에서는그뒤에 理事會가委員會에 軍縮會議準備委員會의 議題作成을委托하고 그會는『제네바』에서會議를繼續하야왓는데 去七日發巴里와『제네바』電報를 綜合하면 英佛의意見不一致로不成立에근접음成가잇다고傳한다

二

아즉詳報에接하지못하엿슴으로 內容에對하야 多少不明한바가 적지아니하거니와 英國側에서는 現存하는兵力即陸海軍과空軍을 制限하기를主張함에對하야 佛國側은 一般國際的軍備를縮少함에는 戰時에出動할수잇는모든戰鬪力即平時에는 別로軍事的意味로보기어려운 武器製造할수잇는工業力科學的能力海陸의交通能力또는動員命令에包含되는 人口等外지그範圍를擴大하기를 主張하엿다고한다 勿論軍備縮少를徹底히함에는 佛國의主張이 理論上合當한바가만하나 그러나實際問題에잇서서는 現下의國家組織이나國際關係로보아서 이것은 殆히不可能한點이만하다 그뿐아니라 英國은只今國際聯盟에서計劃되는바와가치 英國海軍의縮少와 制空支配를絶對로不肯하는裏面의決心이잇슬뿐아니라 佛國도또한現下情況으로는 陸軍을縮少하기어려운바가잇스니 外交的으로는表面의理由를爭하야 軍縮會議不成立의責任을 轉嫁하고 이것을避하려하는것이 看取된다

三

이러케되면 『로카르노』協定이成立된歐洲의各國에서는 될수잇는대로 軍縮을斷行하야 疲憊된國力을恢復하기에 急急하는것도 免하지못할形勢이니 只今의機會를捕捉하야가지고 國際聯盟의힘으로 이것을成功하는것은 一方으로 各國內政의財政經濟上必要에 應하는同時에 對外的으로는소비엣트聯盟에 對抗하는 方策도되는것이나 歐洲의爲政者들이 最善의努力을 앗기지아니하는것도 [illegible] 그러나果然國際聯盟에도加入하지아니한米國이 이에呼應하지아니하고 勞農露國이聯盟에參加하지아니하는以上 諸國의範圍內으로 그와歩調를가치하기어려울뿐더러 이나 容易히成立을 企望할수잇스랴

그럼으로目前의得失에拘碍되여 이모여서云云하는 第二軍縮會議가 아즉도그前途가遼遠하다고아니할수업다 그에當하야勵作하는政治家들을 [illegible] 完全히成功함에는 [illegible]

注目의焦點이든 日本軍에遂動員令
○○師團에向하야政府內命
極東局面은如何히展開?

中國의動亂은在留日人의生命財産의保障을脅威하야 日本에서의出兵說이頻頻히傳하는此際 ○○師團에게動員令이降下하엿다는報가잇다 此輸送에就하야는○○○○○○○○○를用하고 上陸地는國際關係로中國의陸地를避하야 滿洲에가장갓가운곳을選定한모양이더라(門司發至急電)

萬一의境遇엔 武力鎭壓
準備이미完成

日本滿洲守備軍司令官으로張郭兩軍에發한警告의趣旨는 兩軍의和平安協을促進하려함에잇스나 奉軍은어데까지든지郭軍에對抗할決心을鞏固히하고잇는데 一方郭軍은張氏가下野하야平和的으로奉天을讓渡하면何如間 不然이면郭軍의退却은豫想할수업고 아마郭軍은얼마간自暴自棄的으로奉天侵入을企圖할지도未知이며 그리되면日本은警告하여노코到底히默視할수업는關係上 結局實力으로써不得已此를鎭壓하게되야 日本陸軍에서는이미其準備가成立되엿더라(東京電)

騎兵隊도出動

奉天의形勢에依顧하야 日人을保護키爲하야 公主嶺駐屯의日騎兵隊第十聯隊長指揮의○○○名은 五、六兩日에尼하야出動準備에就하엿더라(長春八日發)

駐屯軍도出動

奉天의戰雲이매우危急한外에 旅順駐屯의松江六十三聯隊에對하야 奉天에出動할命令이降下하야 九日朝同地에向한바를 同日正午頃松江留守隊에入電이잇더라(奉天發)

奉軍戰意堅固
郭氏態度如何로

關東軍司令官의聲明書를受한奉天軍은 日本의意思를諒解하야 奉天에서는戰爭을交치안을意嚮이나 그러나郭軍으로서挑戰하는때에는 天津의李景林山東의張宗昌軍의勝敗에不拘하고 最後의一兵이잇기外지郭軍과戰爭할決心으로 着着戰備를整頓하는中인대 關東軍에서는奉軍이奉天附近에서交戰하는境遇는 相當히强硬한再次의聲明書를張郭兩軍에交付하리라觀測되더라(奉天九日發)

張作相吉林歸着

張作相氏는楊宇霆一派의薛貴를隨하고 九日朝長春에來하엿고 臨時列車로吉林에歸하엿다 運賃不拂로輸送을拒絶하엿든張氏의卒兵千五百名와軍需一貨車는 何等의協定이되엿는지 곳뒤를이어來着吉林에送하엿더라(長春九日發)

奉天入城後態度
郭松齡各團에通告

郭松齡氏는九日奉天省議會其他民事團體에左의通告를發하엿더라(奉天九日發)

一、士卒의不法行爲를嚴禁할事
二、在奉內外商民을保護할事
三、東三省官銀號紙幣는認하나 東三省官銀號以外의發行紙幣는認치아니함

(備考) 官銀號紙幣는現在二億以上

平和裡에 政權受授勸告
總領事에更訓電

日本政府는八日關東軍司令官에聲明을訓電한바 更히九日內田總領事에게對하야 兩軍의戰爭에干涉은아니하나 滿洲는我國과密接關係가잇슴으로 事態의 [illegible] 不許할으로兩軍으로奉天附近並滿鐵沿線에서戰鬪를行치안토록 可及的平和手段으로張郭兩者間에政權受授를斡旋하도록努力하는意味를訓電하엿더라(東京電)

郭松齡氏의 政權掌握은短期
◇……文治派의意嚮

郭松齡氏의奉天入城은只今時日等에依하야 郭氏의政權掌握은短期間뿐이리라觀測되며 中國人은一時安定된形狀이나 此에對한文治派의意嚮은

一、郭의叛逆은中國의道德破壞로 一般의民意는이미分離하엿다
一、郭은一武辨으로政治의手腕이無하다
三、共産主義는因襲深厚의中國國民에게不適當하다

張은極히冷靜
日政府의聲明

九日午後零時半菊池少將은日本政府의聲明書를張作霖氏에手交하엿스나 彼는起立하야此를受하야一讀한後同意를表하리라하고 極히冷靜하엿더라(奉天九日發)

奉天商議會 和平勸告

奉天商議會代表趙時雨外五名은 商議會의決議를携하고和平을勸告하기爲하야 郭松齡氏에게會見하기로 今七日夕에出發하엿더라(奉天七日發)

北京天津間 通信杜絶

李景林軍과馮軍의開戰에依하야 李景林氏는北京天津間의電信電話及鐵道를破壞하엿다는報가잇고 破壞個所와其程度는不明하나 北京天津間의消息은全혀杜絶되엿더라(奉天九日發)

錦州日商掠奪

官滿落電에依하면 錦州地方에서張作霖의部下敗兵은掠奪을開始하야 在留日本人經營商店四戶掠奪의被害가잇스나 死傷者는업섯스며 目下日本警官十名은戒中으로 郭松齡氏의第十九旅는同日午後入城하엿다하며 敗走兵은逃避하엿다 目下日本領事는郭旅長에게嚴重抗議한바 同旅長은充分責任을가지고반드시在留日人을保護한다고聲明하엿더라(東京電)

天津總攻擊開始
楊村附近의鐵道破壞

國民軍의天津總攻擊은早曉開始되야 楊村附近의鐵道는破壞되고 國際列車는掩留되엿더라(北京九日發)

奉軍彈藥急造

奉天軍은九日로부터兵工廠의作業을開始하고 彈藥急造에着手하엿더라(奉天九日發)

天津各紡績不穩
租界當局은嚴重警戒

戰鬪開始의報와共히天津租界는 [illegible] 租界內各國當局에서는非常警戒中이며 [illegible] 各紡績工場에는 [illegible] 騷擾發生의兆가잇서 [illegible] 日本人社員全部는租界에 [illegible] (北京八日發)

王省長訓諭

王永江氏는八日各縣知事에게 現狀이매우危險하지만은 秩序保持安民의責任이잇슴으로 如何한境遇에라도決코職務를拋棄함과如한事가잇서서는안되겟다고訓諭하엿더라(奉天九日發)

王省長의쿠·데타
奉天城에敢行計劃
張氏決勝意에强硬反對

王奉天省長은大勢玆에至하야 到底히張作霖氏에勝勢가업는以上 更히省民을苦痛케하며서지遼河에서一戰할必要가업고 張氏는極히興奮하야 遼河에서敗北하면斷然히奉天의市街戰外지不辭한다는覺悟로 [illegible] 滿鐵附屬地를擾亂하야日本에서出兵케하라함은愚의最頂이라고보고 張氏로하여금下野에下할決心을식히는것도王氏인데 張氏가再次遼河에서戰鬪하라함에對하야 强硬한反對를하는中이다 境遇에依하야는奉天城內의兵力이全部出動中임에乘하야 王氏는警察力에依하야奉天에强壓的變革을行하고 張氏를監禁하야 安全한가운데暫時日本當局의援助를受하야 治安維持에當하고 郭軍이整然히入城함을俟하야 自身도野에下하라는計劃이잇다 東三省各地의民心도이미準備하는者도잇더라(奉天電)

只今은漸次張氏에게離反하야 奉天滿洲의各團體는郭氏의意嚮을迎하기爲하야 各其使節을派遣하고諒解를求하는中이라 張郭兩氏間에立한守田醫師의調停如何에依하야는 公然히使節을派遣하야 郭氏는奉天城內에政權을 [illegible] 出兵에關한注文을出하라고 [illegible]

附加稅增收 使途委員會

十日午前十時부터開催될附加稅增收使途에關한委員會開會의 [illegible] 各國全權에게通過하엿더라(北京九日發)

遼河戰은一週後
張氏는馬賊으로還元?
朝鮮軍參謀松井少佐談

奉天軍은大遼河의線을放棄하고 京奉線을破壞하면서 最後의線인遼河의右岸에全兵力을集中中인으로 錦州、新民府의鐵道는全혀撫川하도록破壞되고 一方郭軍의先鋒은大遼河에達한바 郭松齡氏는아즉錦州의附近에잇는둣하며 奉天軍最後의防備는遼河의左岸에 郭軍이戰鬪隊形을取하기外지는적어도一週間을要한다고생각된다 此一週間에는張作霖氏便에 [illegible] 正規軍이到着하엿기때문 [illegible] 郭軍의精兵만을有하야 [illegible] 兵은 [illegible] 不良한狀態이잇다 그러나郭軍은師團長旅長以上에는郭氏崇拜者가多하나 聯長、營長以下는張作霖氏의崇拜者가多하고 奉天에對하야는歸心이如矢한것이잇다 從하야至今外지의戰鬪에 [illegible] 奉軍에投降한二旅의例도잇고 遼河附近의戰鬪에도오히려投降의 [illegible] [illegible]

軍隊軍資를拒絶
吉林省議의決議

奉天軍敗報를接한吉林省議會는 緊急會議를開하고今後態度를左와如히決議하고王省長의開局을相談하엿든後다시戰線에出動中의張作相에게그닐을打電하엿더라

一、今後吉林省에서는軍隊를一切出動치안할事
一、軍資金도보내지안할事

司法調査代表
日置氏兼任

十八日부터北京에開催될中國治外法權撤廢에關한司法制度調査會에列席하는日本政府代表는日置氏兼任에決定十日閣議承認後正式發表할터이더라(東京電)

五師歸順으로 張宗昌大勝
河南軍은總退却

山東軍은八日泰安을襲하고 河南軍에投한五師의試兵은張宗昌軍에歸順을要請하엿더라 … 回復하고 河南軍은濠 … 陸大汶口에向하야總退却을開始하얏스며(濟南九日發)

赤露活躍去益露骨
馮軍內에赤露軍
軍機軍資로도援助

馮玉祥軍에對하야勞農露國이軍事的으로援助하고잇슴은旣報와如하나更히情報에依하야傳하는바에依하면

一、蒙古人으로된元陸軍士官學校長『카라원』을支隊長으로한騎兵二百名
一、海港赤軍義勇團兵員六百名
一、赤軍砲兵二個大隊砲六門을有함
一、飛行機十三臺
一、赤軍步兵一個聯隊兵員二千名이馮軍中에編成되고其他東中沿線에서募集한白系露人에編成된部隊가잇다 元『코착크』政府의陸軍大臣『이와놉』『리노프』大將이此를指揮하고又上海勞農領事『오솔닌』의募集한勞農系一千名이잇사其他

日本聲明書
張氏에手交

八日日本陸軍省에서公表된政府의聲明書는九日關東軍特務機關菊池少將으로張作霖氏에게對하야手交하고郭松齡氏에게對하야는關東軍司令部派遣參謀가今朝旅順에서自動車로葫蘆島에上陸하야手交할터이더라 (備考) 郭松齡氏에게는菊池少將이面會聲明書를手交할豫定이든바形便에依하야變更하엿더라

吳軍南下를阻止
無賃乘車를拒絶

中國軍隊輸送에關하야東中鐵道에對하야過去六年間에二千二百萬圓의債務를拂치아니하고無賃乘車한것이다『이와놉』長官은左와如히沿線各驛長에게嚴命하얏스나此는濱貴한計劃이라하며吳俊陞氏軍隊의南下를阻止하라는赤露의計策에出한것이라한다 利가無하고百弊가잇슨則이라十二月一日부터一般乘客同樣의乘車賃을徵收하라고 東中線에依한中國軍隊의輸送에 [illegible]

結局無事
來議會는
各政黨의空氣

[illegible]

何故로出兵?
政友總裁와首相의會見

[illegible]

憲本兩黨態度
政友側觀測

[illegible]

公正交友 政府反對顯著

[illegible]

日露假調印
◇正式調印은十日

[illegible]

橫說竪說

◇日本東京에서는 [illegible]
◇日本의全國反求敎同盟은 [illegible]
◇京城市內通利의 [illegible]

自習完璧 支那語集成

士女必知 五倫行實歌 附 弄璋歌

現行刑法大全 全一冊
愛의犧牲 全一冊
尺牘大鑑 全一冊
英雄尺牘 全一冊
雄辯演說法 全一冊
名字吉凶自解法 全一冊
日鮮簡牘 全一冊
學生作文法 全一冊
諺文簡牘 全一冊
秋史書帖 全一冊
新舊女子集 全一冊
百方吉凶秘訣 全一冊
期米相場指南 全一冊
漢語入門 全一冊
玉蓮의눈물 全一冊
江上村 全一冊
美人奇事 全一冊
三綱門 全一冊
九尾狐 全一冊
映山紅 全一冊
天桃花 全一冊

右外에 歷代稗小說과 數萬種新舊書籍을 無漏히 大宗備하옵고 當此冬期하와 特別大割引으로 都賣散賣하오니 同業諸氏及紳士學友諸位는 一次往文試觀하시면 本書林의 特廉한 眞否를 確實히 判斷하시리니 主念히 下命하시오

新舊書籍 出版發行 都賣散賣
京城 德興書林

巨商三越의北進策과 問題된東洋物產建物

조선상인을위협하는삼월의북진책
동아물산빌딩을매수하얏다는풍설

北村商界의一大威脅

[illegible]

對策이別無

오직산용과노력 某雜貨店主談

[illegible]

意嚮은잇소

그러나당소는달러 ◇三越店 加藤氏談

[illegible]

賣買手續이疑問

일반은그하회를매우주목

[illegible]

買主는常務取締

[illegible]

一大威脅

사실이면큰일 某布木商當局談

[illegible]

朝鮮郵船被訴

[illegible]

間島大雪

적설이칠팔촌

[illegible]

戒嚴令內容

[illegible]

愛人과살수업서 妓生飮毒自殺

路柳墻花도가지가지

[illegible]

道廳雇員家에 拳銃二挺隱匿

함경남도학무과고원집에 권총세자루와탄환을은닉

犯人은一挺携帶逃走

[illegible]

今年의노벨賞 佛首相英外相

[illegible]

橋梁墜落으로 重輕傷十四名

옥천대면간공사중의참사

[illegible]

美人自殺

[illegible]

步婦飮毒

[illegible]

生活難으로自殺

[illegible]

無產 靑年團

[illegible]

新人間大學

[illegible]

朝鮮警官의滿洲出動

[illegible]

正義府義勇軍

別動隊員潛入說

白日敎의八萬圓도

[illegible]

京靑創立紀念

금일오후거행

[illegible]

◇휴지통 [illegible]

日本全國의失業者十一萬

十一月一日現在國調

[illegible]

一大威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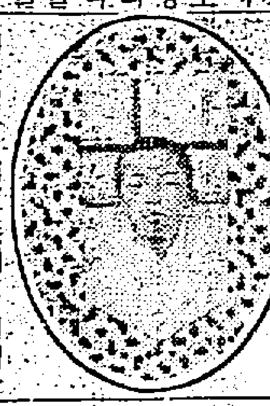
[illegible]

慘殺된苦學生 金聖淵의一生【一】

◇世上에남긴哀話種種

尙州서大邱

[illegible]



아비는畜妾

[illegible]

赤手로京城

[illegible]

母親의말

[illegible]

다남織工盟罷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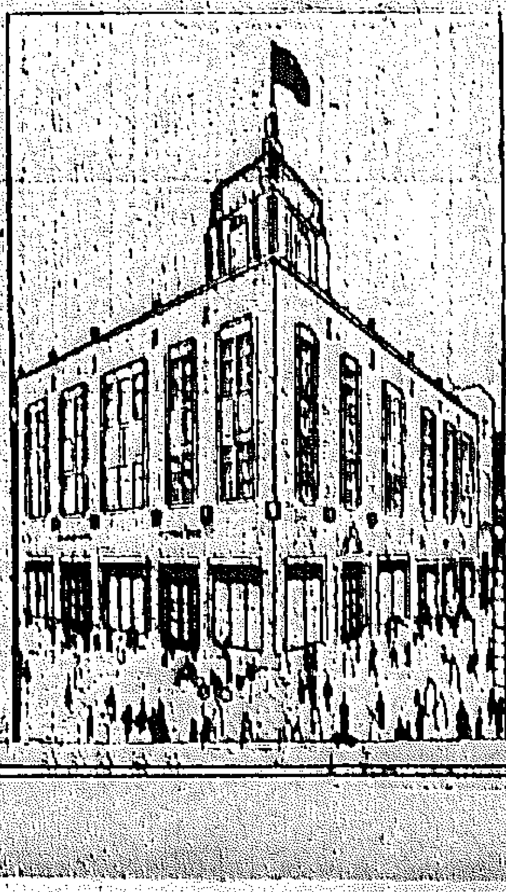
當局에交涉處置

[illegible]

歲暮大賣出과 本町빌딩

滋味잇는商品券

[illegible]



淋疾 靈効丸
天恩堂大藥房

特製 梅瘡丸
三光社

◎艶麗花와如한!! 美人裸體寫眞

머리를검고길고윤택하게

新發明
萬年靴
金榮商會

朝鮮文直解
先生著 定價三十錢
德興書林

ClibPDF - www.fastio.com

일반이소홀히녀이는 감긔에대하야 (六)

감긔의무서운해독 그방역에대한주의

◇이우에 감긔 아니들게하는필요조건으로 거처(居處)와 음식(飲食)에대한주의를말하엿거니와 다음으로 주의할것은목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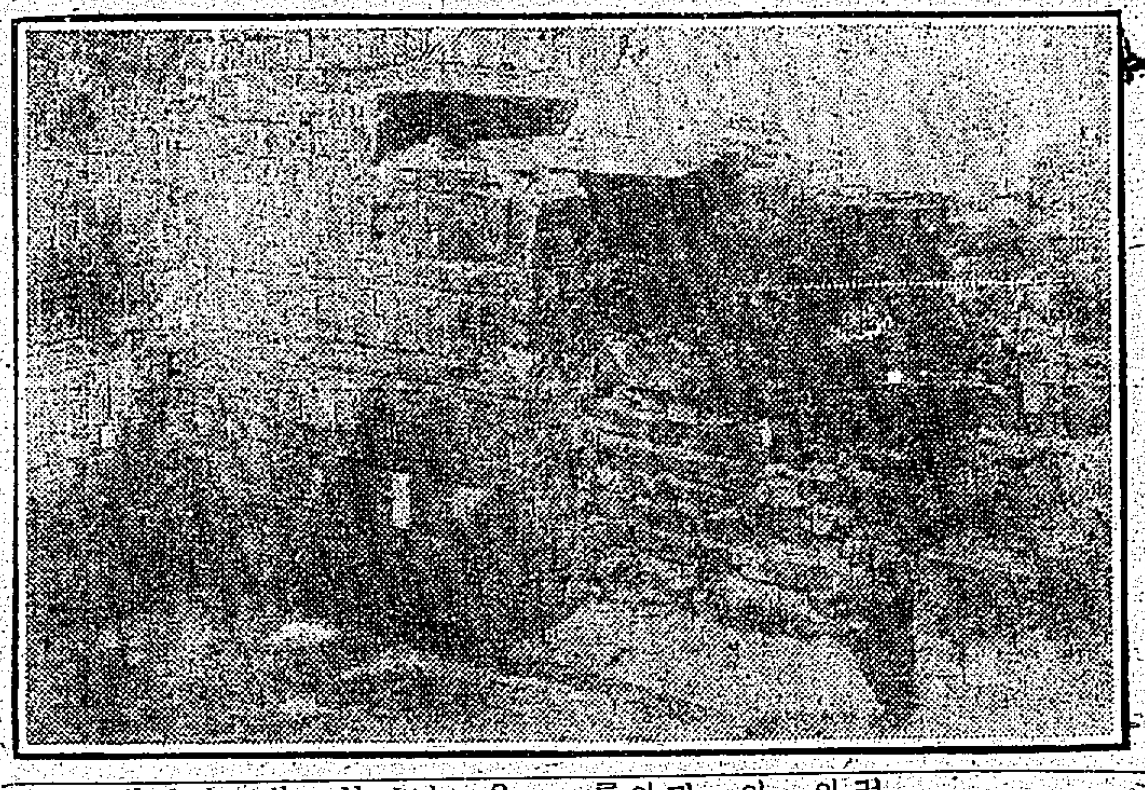
四、목욕(沐浴)

사람은입으로만!!숨을쉬여 공긔가운데의한양소를취득할뿐이아니라 피부에피부호흡(皮膚呼吸)이라는작용이잇서서 몸가운데서 생기는불필요한것을 내보내고 공긔가운데잇는 필요한양소를취하는것이다 피부호흡이미약하며 코와입으로 호흡하는것과가치 현저히 눈에보이지아니함으로 세상사람은 업는지잇는지 자세히모르지마는 만일웬편신에 고약갓흔것이나 떡가튼것을못걸게입혀며 피부면을다막아붙진대 그때에나타나는 현상을보아 우리는피부호흡이 얼마나필요한것인줄알수가잇다 그러케하면

◇그사람 이아모리 입과코으로호흡을 잘한다 하더라도 몃시간아니가서 반다시 병이날것이오 그대로계속하면 그사람은 반다시죽고야 말것이다 이에 버로소피부가을마나 필요한작용을가지고 잇는것을 셰다를수가잇다 몸에쎄가 쒸어서피부호흡의길을 막는다하면 그막은이만치 그사람은 건강치못한것을 의미함이다평소에 목욕을잘하며 피부가쌔끗하고 늘피부호흡의길을 여러가지고 잇는사람은 감긔가들더래도 병을잘흩넘수가 잇슴으로열긔는 얼는나린다 쎄가더지더지쒸여서 피부면을 덥흔사람은병을 쉽게흘릴수가업슴으로감긔는더딋낫는것이다감긔가들고아니드는데

◇근본뎍 원인도피부를청케하고 아니하는데잇다 피부를청하게각근호찬물로마찰하여 피부가 든든한사람은 여간해서 감긔들지아니한다 그러나 잘아니씻고 쎄가쒸여가지고잇는사람은피부가약해서조곰하면감긔가드는것이다『우리나라사람이 말하기를겨울에목욕하면감긔든다겨울에는 목욕하지마라』한다 목욕탕주인에게무러보면조선사람은겨울이되면한사람이한달에 두번목욕하려오는사람이드물다고한다 이것이 감긔드릴원인이다목욕을아니해서 쎄가쒸어 약해진피부를감작이 떼를씻서찬바람에 부다치게하면 곳감긔들것은 분명한리치다 웨그런케쎄쒸지컨에 목욕을아니하는가 그런케하면 감긔드를 근심이업슬것을웨쎄가 그러케쒸어 눈에보이게도록내버려두어 피부를약하게하는가 쎄쒸기컨에 목욕을하면

◇피부가 약해질염려가 업슬것을 겨울일사록 목욕을자조해야되고감긔아니들게할사록 목욕을자조해야한다그런데겨울에목욕하는데하나쏙주의할일이잇다우리나라 사람은 대개공동목욕탕에가서 목욕을하게 되는데더운물에 목욕을하고 곳찬긔운을쓰이고 집에도라오는 동안에감긔가들기 쉬운것이다 그럼으로목욕을다하고 나와몸을 식힌것은찬물을다하고 나와몸을 식힐것이언고 나와몸을 씨언지말고 이찬물을 차차찬물로 옴겨부터 차차찬물로 옴겨가서나종에는 아조찬냉수를 한번씨언고나오면감긔들념녀가업다 그것이 실혀서아니하면 추운날이오면이나 약한사람은 반다시감긔가드를것이다(계속)



◇……樂浪古蹟畫報(其五)……◇

創作 眞珠는 주엇스나 (五五) 廉想涉 作

五―三

그러나 지주사에게 부탁을하야노흔지 사흘이되여도 날마다『아모편지도업세요』합쇼이다그럴리가 업스리라고 족처보아야 사실효범이에게도 연신이 업는 모양이엇다 나종에는 효범이방을뒤져보낫가 엇지하야 그대로 갓는지모르겟스나 의외에 인숙이편지두장이나왓다진변호사는 무슨언덕거리라도 어든가하고 반기엇스나 역시실패엇다 돌이어 그편지사연속에 자긔와의관계를말하고 원수가치 베르는것을보고는 맹낭스런년이라고 니를악물며

―네가얼마나 버틔나 해보자!』고 한청텬분이 박치엇다

진변호사는 여전히 궁궁알으며 집안사람만들볶갓다 그러나 나간지 엿새가되여도 영영감감하다 인케는더참을나위가 업섯다―마지막으로 결심을하고 수색청원(搜索請願)을 소관경찰서에데출하엿다 여긔에는진변호사도여간로심을아니하엿다 인숙이나자긔나 사회에나선사람이 하데셋부른짓을햇다가신문에나나게되면엇지하나? 하는념려가 무엇보다도 무서웟다 그러나원악이 철박한터이라 어느때까지닭쫏든개 집웅치어다보는 격으로가만안젓슬수가 업서서 아는형사를써고 비밀히 일을진행하야노앗다

그러나 일은 의외의人대로발뎐되엇다

수색원을 데출한지 이틀만에 진변호사人집에는 효범이의친구라고하는 노상 쳘은청년이차저왓섯다 효뎡이는 친오라비나사라온듯이 쒸어나가서 만나보앗다 물론문자도 궁금해서쏘차나갓다 그러나그청년이 학교뎐으로효범이가 알른다는 소식을듯고 위문을왓드라 하면서쏙만나보아야 할일이잇는듯이 매오섭섭해하는 눈치를보고 소식을알아보라고 하든효뎡이는 얼마쯤실망이 되면서도 화가난다고나간지가 엿새나되도록 아니돌아온다 는말을하고 만나거든데려다 가주지는 못하드라도 괴별이나하야달나고부탁하얏다

그사람이 간지 얼마만에하인이드러오더니

『그냥반이 누구세요? 별소리를 다―뭇고 나종에는커아씨이야기까지 뭇것지요』하며문자를가르친다

『그래 무어라고햇나?』

문자는 눈살을 찝흐리면서도우스며 무렷다

『인쳔서 놀라오신 학교선생님이라고하엿지요』

『그런소리는 웨해! 별 이상한사내도만타!』

문자는이런소리를하면서도효범이의 친구라니 그리불쾌할것도업섯다 그러나 그남자가단여간뒤에는 효뎡이나 문자나말은업섯지 내이지안어도 한칭더효범이를보고 십흔 생각이간절하고무슨불길한일이급시로압헤다쳐오는 것가타여서 마음이싸부러지고 집안이 별안간쓸쓸하야 안절부걸은 못하엿다 마루에기대여서고안고한두녀자는 어느까지얼업시볏치쨍쨍한뜰을내다보고잇스나머리에는효범이와인숙이의얼굴이형형색색으로떠올려왓다―몰에흥퉁히부은효범이의시테가홀눈보이다가는인숙이와나란히서서거려가는것이굴도보이고 피아노를치는 인숙이의가름한 얼굴이 떠올려왓다가스러지면고개를 번쩍 쳐들고기대어 안저서감은두눈으로눈물이술술 흘러나오는 효범이의해쓱한 얼굴이 보이기도 하얏다

요새며칠동안 더욱히 문자의머리를 괴롭게하는것은 효범이가『모군을서서라도 인숙이를버려먹여 살릴테니……』하며매부를되리며든말이엇다

―청말 인숙이를 쏘차갓나? 그러면 서울에도업고 인쳔에도업슬텐데 언케싸지 이러케기다리고잇드람! 하지만 이대로갈수도업구……』

문자는 나종에는 이런생각을하다가 방문압헤안젓는 효뎡이를돌려다보며

『형님래일낫싸지 기다려보구나는가야하겟소』하는말에 효뎡이가깁흔꿈에서 쌔인사람 커렴쌈작놀라며

『그도그러치만 문자싸지가면나는엇저누……』하는 말소리는 비참하게힘업시열리엇다

時調 요한

◇

고요한 밤이러라 소리업슨 밤이러라
고흔꿈은 장옷쓰고 님의자리갈쌔러라
풀넙히 눈물먹음고 긴한밤을 새더라

◇

님의 눈동자에 비치인씌 크로스워든
가로바도 세로바도 풀지못할 님의『퍼즐』
풀다가 죽는한이라도 굴어볼가 하노라

學窓散話 『되무덤이』에서(六)

◇樂浪의古墳들은 대개丘陵의가상이를조차다니면서 方形으로封土하야 맨드니이케그그려치아니한것들은風雨로末蝕에이아커變形된것일따름이다 이方臺形의墳墓는본대周漢時代의通例인것으로 中國陝西省의咸陽附近에잇는 周의文成康諸王과西安에잇는 漢의惠景宣諸帝의陵이란것은 다方臺形임으로써 學者는이古墳群이 대개漢僑民의 遺兆임을斷하는 一條件을삼는터이다 이墳墓의 內部곳槨을너흔 玄室의 壁은대개木造와 塼築의兩種으로 난호엿스니 前者는곳木槨 이라는것이오後者는 塼槨이라는것이다 木으로된것이 대개 前期요塼인것이대개 後期에屬하는것임은여러가지 事實로써 推想되며그中에木과塼을 隨便混用한것은필시 過渡期의 一形式혹事力關係인것도갓다

◇槨이 木임과塼임을딸하서 그構造와 埋藏方法에얼마쯤差違가잇다 木槨일것가트면 대개쌍바닥에깁히壙穴을파고 竪槨을만드러棺其他를너흔뒤에 그우에封墳을하고 塼槨일것가트면다만쌍바닥을 고르게만하고그우에橫槨을만들고 그거죽에흙을덥허서 墳饅을일우고그前面에羨道라고하는 出入口를베플엇다 木槨에는四壁과天井을厚板으로써 櫃形으로맨든것도잇스되 이런것은玄室이썩작은境遇에만쓰는것이오 玄室의큰것에는 六七寸乃至一尺內外의堅材를口字形으로 가로싸하올려서四壁을맨들고 바닥과天井도또한그러한木材를깔고 덥는것이通例이다 그리하고그腐朽를防遏하기爲하야는 가진苦心을다하야 혹 그周圍에粘土로두껍게테를두르기도하고 혹은우리돌로총총이 헙싸기도하고또혹은우리돌과 木槨과의틈섬이를木炭으로써 메우기도하야雨水의浸透를避하려하얏다

◇塼槨은 長約一尺一寸廣約五寸厚約二寸으로 흙으로맨든灰黑色의大벽돌 서방 우라가쓰는벽돌보담 크기도하고단단도한것으로써 天蓋를木材로쓰는境遇에는 垂直으로 싸하올리고 더進步하야 天蓋外지塼으로쓰는境遇에는 天井을穹窿形으로솟씨잇게맨드럿다 이塼槨에는 玄室의外에別로前室을베픈것도잇고 또前室의저쪽側室을맨든것도잇스며 이것은다羨道로부터들어가서 順次로交通하게되어잇는데 羨道도무론塼으로싸코 그上部는반드시虹霓를맨드럿다 이러케穹窿天井과虹霓門을 適宜히配用한것은當時의築造術이 어떠케進步하엿슴을보인것이다 壁은대개한장두께요 塼의싸흔법은三段을눕혀싸흔다음에는 一段을세워싸고 또면방이러케되풀이를하야올라가다가 天井穹窿은便宜하게맞흘려버렷다 그런데塼의側面에는 각가지幾何學的의문의를박아내엿슴으로 간컨지런하게 싸허잇는壁面을데미다보면 一種의재미가생기나니壁이나天井을 원체한장두께만으로하얏기때문에 數千年갓가히지낸시방와서는 大部或幾部의崩壞를發한것이 별로업시되엿다

(寫眞은塼槨의塼을積累한法式

隨想 스믈네번재 李殷相

何必스믈네번人재라는것이問題 그리異常스럽고滋味잇는것이 가될것이 무엇이냐하고뭇는이 잇슬것이다 그러타! 特別히쏫 잇는말도안이요 異常하게볼것 도안이다 『스믈네번人재!』아무리하여 도貴한말도안이거니와아무깁흔 意義를띄운것도아니다 구태여 이二十四라는말을뜻잇개부커보라고할진댄 하로를 난호어二十四時間이라고 부르는것이어떠케 공교로히맛기는 한다

또이數字가들어한書名이되여잇는것을보건댄淸의乾隆中歷代의正史二十四種史記、漢書、後漢書、三國誌、晉書、宋書、南齊書、梁書、陳書、魏書、北齊書、周書、隋書、南史、北史、舊唐書、新唐書、五代史、五代史記、宋史、遼史、金史、元史、明史를總括하야된叢書의名을二十四史라하기는하엿다

그밧게또보면 元나라郭居敬의所作이라하거니와 虞舜、漢文帝、曾參、閔損、仲由、董永、江革、陸績、唐夫人、吳猛、王祥、郭巨、楊香、朱壽昌、庾黔婁、老萊子、蔡順、黃香、姜詩、王褒、丁蘭、孟宗、黃庭堅等을合하야 二十四孝라고한것도 어떠케巧妙히이『스믈넷』이란것에關聯이잇는듯도하다。

그밧게도佛道에卄四菩薩所謂二五大菩薩觀世音、大勢至、藥王、藥上、普賢、法自在、師子吼、陀羅尼、虛空藏、德藏、寶藏、金光藏、金剛藏、光明王、山海慧、華嚴王、衆寶王、月光王、日照王、三昧王、定自在王、大自在、白象王、大威德王、無邊身王中에서 맨 無邊身王을除하여 二十四菩薩이라하는것도잇기는하다

그뿐만안이라 二十四氣란것은 歷의五日을一候라하고 三候를一氣라하야 二氣를一月이라하니 一年十二月을二十四氣에餘라하엿고 特히『二十四番花信風』이란文字는 이二十四中 小寒(陽一月五日)로부터 穀雨(陽四月二十日)外지合二十四候사이에五日마다 한번식春風이불어 小寒一候에梅花가피고 二候에山茶 三候에水仙이요 大寒一候에瑞香이웃고 二候에蘭花 三候에山礬 立春一候에迎春하야 二候에櫻桃가피려하면 三候에望春하고 雨水一候에菜花가열고 二候에杏花 三候에李花라 驚蟄一候에桃花가눈을뜨고 二候에棣棠 三候에薔薇 春分一候에海棠이써맛나고 二候에梨花 三候에木蘭이고 淸明一候에桐花가웃고 二候에麥花나 三候에柳花라 穀雨一候에牡丹이조하하고 二候에酴醾 三候에楝花라이러한 것이잇서、或이二十四라는말을 무슨뜻이나 特別히잇는것갓치들수도잇다

그러나내가 여기에『스믈네번人재』라는問題를걸어노흔것이 이러케그數字上으로 또語音上으로보아 滋味잇는것도안이요 意味가잇다는것도안이다

다맛 이『스믈네번人재』라는것을 讀者들의첫눈에 씌어보내는것이 아무뜻도업는 意義가存在치도안이한 나의나희(年齡)를 적어노흔것이다。

이것을 쓰는것은 將次이乙丑年도 몃날이 못지내는 生日도이번이(이날이)스믈네번人재 이케부터는 스믈네번人재박휘를넘겨보내고 이케부터는 二十三歲의送年詞로 몃마대 적어두라는것이다

詩歌 故鄕의벗님 李俊英

一

哭香氣그윽한
그림은녯동산을써나
서투른바다벽(透)
荒凉한벌판으로
咀呪의恨歎을외우치며
飢餓과悲哀에 헤매는몸이
뉘기다 뉘기다
하소연할곳업서하여라

二

憤怒의울음을울어가며
벗님과싸스한손목
난호을그쎄
皎皎한明月은
구슬눈물에빗치주더니
넷자최언의듯
痕跡도업고
넷것흔月輪은永永히
업서지지를안네

三

휠휠다름질치는
얄구진歲月은
고달픈生命의샘물을
앗김도업시사청도업시
나날이말녀만주더라

四

앗김업시벗죄는
달밝은밤긴흔밤
任任한너른바다에
물소래쑈임업시
흘너나리며
늣가울님지는소래는
蕭蕭히들니네

五

벗님의보내신그리운쑴은
밤마다밤마다
쇠잔한나의가슴을
울녕거리며
사라진녯追憶은
쏘다시날쒸인다

六

내입살에옷음을
自然히짓게되오며
그윽한歡喜가
잇슬적에는
소리쳐소리쳐
벗님의기다림이
만흐신恩惠인줄을

新刊紹介

▲紹介를賴하는冊子는東亞日報社編輯局으로보내주시오

▲沙上散策(金岸曙著)八十餘種의苦心努力한隨筆!定價七拾五錢振替京城一八六京城齋松洞六十二番地白熱社

代表的國産品 베루뻿도
ベルベット石鹸

趣味와實益에富한
歲末年始 御贈答品

獨立祝賀의景品入베루뻿도石鹸三個函은바드신便에서大段히조화하십니다

三個函에는

景品封入

여러보면아는景品各種

◇腕卷時計引換券 ◇寶石入배타이빈引換券 ◇指輪引換券 ◇帯止金具引換券 ◇貯蓄債券利附引換券 ◇베루뻿도小刀
◇小判型石鹸入引換券 ◇漫畫お伽繪本 ◇名狂言似顔繪 ◇日本組立人形 ◇敎育世界카―드 ◇敎育卓上動物園 ◇敎育卓上歷史

大日本石鹸株式會社 本社 大阪江戸堀上一 東京・名古屋・神戶 福岡・仙臺・小樽・臺北

鏡付美術容器入

現代貴婦人間에 盛大히歡迎밧는

クラブ 구라부 白粉錠

如何한場所에서든지輕便히고 처化粧할수잇고또迅速히하는 化粧에가장適當한것임니다……

優良第一位의 カテイ 가테이石鹸

入浴과化粧前의洗面에는品質優良의가테이石鹸을使用하시면決코皮膚가거칠어지지안습니다

漆谷公普生盟休

五六年一同이 連署捺印한 盟休理由書를 道郡에 보내고 解決前에는 登校치 안키로

◇無誠意한 校長排斥運動

慶北漆谷公立普通學校生徒二同은 校長高橋耕一郎氏를 排斥하야 同盟休學을 斷行하는 同時에 如左한 趣旨書를 道郡當局에 提出하엿다고

◇盟休理由書

우리 學校는 設立以來로 代々의 校長先生과 諸先生이 親切치 안으신 이가 한 분도 업섯스며 訓練에 綿密하지 안은 분이 업섯는바 今春에 赴任한 校長先生 高橋耕一郎氏는 赴任以來로 部下諸先生님에게 不親切할 뿐 아니라 우리 生徒들의 訓練方法이 不徹底하며 **不誠實** 하여 우리 校風은 逐日紊亂하여지며 規律이 서지 못하여 恰似히 荒木野의 遊戲場을 幻成한 파가 되엇스나 우리 學生一同은 每日 校長先生에게 上記와 가튼 非行을 고치도록 直接或은 間接으로 要求하야 師弟의 禮를 堅守하고 잇섯스나 校長은 終始一貫으로 그 惡習을 改치 아니함으로 우리 學生一同은 協議한 結果 先生이라 하는 이는 生徒에게 尊長한 習慣을 가지도록 訓導하는 것이 **職責이** 며 生徒로서도 先生에게 敬意를 表하는 것이 當然한 道理가 아닌가 高橋校長의 惡習은 上記에 止하지 안코 直接 敎授場에서 左記와 如한 行爲가 一日에도 非一非再함으로 우리 學生은 憤慨함을 이기지 못하여 一言을 드리오니 局에 當한 諸氏는 깁히 **諒察하** 시와 親切하고 訓練에 誠實한 校長先生님을 맛들게 하여 주시기를 懇切히 希望함니다 이 問題가 解決되기 前에는 우리 一同은 不美한 일이나마 登校치 아니할 것을 決心하고 잇슴니다 (五六年生一同 李鍾伯外三十三名連署捺印)

一、出勤에 怠慢한 일
二、上學鍾을 울닌 後로는 二三十分後에 敎室에 들어오는 것을 常習삼는 일
三、敎授에 不熱心한 일
四、言行의 不正한 일
五、敎授時間中 突然히 私宅에 二三回式 往來하는 일
六、授業時間中 新聞雜誌를 專門으로 읽는 일
七、每日 生徒의 出席與否를 調査치 안는 일
八、授業時間에도 일이 잇는 듯이 外出하여 道路近邊에 散步하는 일
九、엇던 날은 漆谷消防組練習日에 終日授業을 不顧하고 遊樂에 耽한 일
十、本校長赴任以來 綴方、圖畫等은 成績考査도 아니하고 또 發表도 안하는 일
十一、本年一學期成績通信簿를 九月一日에야 生徒에게 配給한 일 (原文日文)

池沼를 埋築하야 田畓開墾計劃

廿六個池沼를 道當局에 申請中인데 許可만 되면 開墾에 着手할터이라고

金堤中學期成會서

金堤郡有志가 當地에 中等敎育機關이 업슴을 遺憾으로 生覺하고 中學期成會를 組織한 바 今般 東津水利組合이 完成되면 金堤郡內의 堤堰 一百個中 二十六個所는 從前과 가치 維持管理할 必要가 업슴으로 當會에서는 이것을 水面埋立免許를 請하여 中學經營의 한 財源을 造成코저 當會의 主要會員 趙乘喜、金國鎭等 二十餘人이 活動한다 함은 旣報한 바어니와 道問當會에서는 그 公有水面의 埋立免許를 어더 논으로 開墾할 計劃을 세우고 事業豫定區域等을 作成하야 當郡廳에 그 免許願을 지난 六月 二十四日에 提出하얏든 바 數日前에 道當局으로부터 願書를 至急히 提出케 하라는 照會가 金堤郡守에게 왓다는데 이 말을 들은 中學期成會幹部들은 幹部會議를 열고 밧비 道에 갈 것을 決議하고 數日後에 그 願書를 道에 提出하리라는데 當會에서는 許可되는 대로 水面埋立工事에 着手하야 開墾하리라는 바 二十六個所의 池沼는 別로 큰 힘도 들지 안으리라 하며 二十六個所의 池沼는 다음과 갓다고 (金堤)

所在地	地積(町)	(步)
金堤面校洞里	三四	一五、七五九
聖德面大木里	六一	四、〇四七
同 大石里	五九	八、五三〇
同 聖德里	五四	四、九七
同 石洞里	四九	三、四〇三
同 聖德里	一六	六、六〇六
同 石洞里	五三	三、六〇九
同 沙雜里	六三	六、二〇四
同 石洞里	一七	一、三三九
同 大木里	四三	九、五三八
同 沙雜里	四四	一、七三〇
進鳳面淨蓮里	七五	二、一六四
同 加實里	九	四六、〇〇四
同 淨蓮里	一〇〇	三、四三二
同 同	一九	一〇、一四〇
月村面立石里	三	六、四三四
同 蓮井里	三三	三、七九七
同 同	七九	八、二〇二
竹山面洪山里	三六	六、六七六
同 同	一九	一、二八二
扶梁面月昇里	五五	一、五三三
同 同	一〇	一〇、三九四
雙坎面新興里	三九	六、二〇〇
同 鳳山里	六五	二、九一七
竹山面玉盛里	四八	三、二七〇
月村面長華里	五四	一、九六二

◇地方論壇◇ 公器와 私利

普校新築에 對한 定平郡守의 妄動

定平 一記者

學校는 民衆의 公器다 民衆이란 集團體를 떠나서는 學校는 그 存在의 意義를 일코 말 것이다 數億萬의 細胞가 結合하야 一個의 物體를 形成함과 갓치 數百數千의 民衆의 集團속에 잇서야 비로소 學校라는 存在가 現顯되고 또한 그 存在가 偉効를 奏할 것이다 엇던 物體의 單細胞가 分離하야 獨存하면서 그의 威勢를 振舞하며 偉功을 發揮할 수는 업슬 것이오 따라서 그 單細胞가 旣히 形成된 物體의 萬般施設을 左右할 수는 업는 것이다 此理에 枠하야 學校도 엇던 一分子로서 그의 功績을 爆然케 하며 그 根本的 意義를 蹂躙하여도 此는 愚痴忘想에 不過할 것이오 따라서 그 外的 內的의 諸般處理를 一個人으로 左之右之할 수는 업는 것이다 만일 一個人으로 任意處斷한다 하면 그야말로 矛盾의 極致일 것이오 無智曖昧가 아니면 無道不義의 人間이나 取할 態度일 것이다

◇吾人은 玆에 다시 贅言을 不要하거니와 今般定平普校新築問題에 對하야 本郡守의 態度는 無道한 高壓手段이라고 아니볼 수 업다 新築中校舍가 一夕에 倒壞되매 郡守는 請負業者 一個人의 便宜를 圖키 爲하야 原設計의 高보다 四寸을 줄여서 再築키를 任意承認하엿다 만일 本郡守가 가장 純粹한 動機와 眞摯한 態度로 愼重考慮하엿다 하면 民衆의 輿論을 綜合할 學校評議員會라도 開催한 後에 此를 承諾하엿스리라고 밋는다 그러나 本郡守는 考慮가 未及하엿슴인지 學校가 民衆을 써나 存在한 줄 알엇슴인지 一言半辭의 發表가 업시 默默然坐斷하엿다

◇吾人은 그 單獨的 行爲의 潛在한 理由를 未知하거니와 何如間 郡守는 學校後援會에서 選定한 本事件 交涉委員에게도 何等의 責任잇는 答辯을 아니하고 「그 四寸을 줄여도 完全한 建築物인데 그만 말엇스면 되엿지 國家事業에 무슨 干涉이냐」고 叱怒하엿다 한다 아모리 國家事業이오 事件의 當事者인 郡守가 善히 監督한다 하더라도 原設計에 反하는 建築에 對하야 民衆이 疑心함도 無理는 안일 것이오 또한 原設計대로 要求함도 至當한 일일 것이다 將來幾十幾百萬의 어린 生靈을 길너낼 數百數千의 民衆의 公器로 하여금 一個人의 利益을 爲하야 一個人이 左右하고 오히려 民衆이 干涉한다고 權力으로 壓頭하니 이런 胸塞之極이 어데 잇스며 細胞가 集團體를 左右하려는 矛盾이 아니고 무엇이랴!

◇民衆은 各自의 子女를 爲하야 면 將來의 宗平을 爲하야 正正當當한 主張을 하려고 하나 爲政當局者는 事實의 眞相如何를 不拘하고 此事件에 對하야는 集會까지 禁止하니 아 抑鬱한 怨恨을 어데가 呼訴하랴 이것을 모르고 그저 權力에 依하야 自意대로만 하는 것이 엇지 爲政者의 할 노릇이랴! 郡守以外 一般關係爲政者의 反省을 促하노라

成北記者大會

來廿五日會寧서開催

咸北記者團에서는 來二十五日午後二時부터 朝鮮日報會寧支局內에서 大會를 開催한다는데 旣加入者는 勿論이어니와 未加入者도 速히 加入하며 同大會에 期於參席하기를 바란다 하며 參加規定은 如左하다고 (羅南)

參加資格 咸北에 在한 朝鮮文新聞雜誌分支局又는 分支社의 記者로써 할 事

一、參加金 無

一、參加期限 十二月二十四日

一、外지

一、申請場所 朝鮮日報會寧支局

理髮許可도 差別

日本人이면 許可하여도 朝鮮人인 故로 못한다고

固城警察署의 差別行政

慶南固城警察署에서 얼마전에 同郡會華面背屯里靑年理髮館에 廢業을 식힌 일에 對하야 여러가지 非難이 만허 同業朝鮮日報支局長具鍾根氏에게는 筆禍事件外지 惹起되여 한동안 世上의 耳目을 쇠을고 잇든 것이 事必歸正으로 該事件에 對하야는 無罪로 判決되여 一段落을 告하는 今日에 또 이러한 差別的 行政事實이 突發하엿다는데 同郡邑內 武本理髮館은 얼마전外지 日本人武本多助라는 사람이 經營하고 잇섯는데 武本은 家庭形便으로 日本으로 歸하게 되여 同營業場所와 器具全部를 自己의 助手姜正淮에게 賣渡하엿슴으로 姜正淮은 該場所에서 그 器具로 營業을 할나고 管轄當局인 固城警察署에 出願하엿던바 出願한 그 翌日에 姜正淮을 呼出하야 該場所에 營業을 許可하엿슴은 事實은 正員外이엇는데 現營業者의 一人인 日本人馬場今朝五郎이 病者임으로 武本에게는 許可하엿스나 日本人이 廢業하고 朝鮮人이 許可를 어들나 하면 그는 許可할 수 업다는 口實로 該願書를 接受도 하여 보지 안코 返戾하엿다는데 이 事實을 들은 一般人士는 當局의 鮮日人差別的待遇를 非難하며 甚至於 日本人外지도 그 無理함을 말한다 하며 또 馬場이 나 病者임으로 武本에게 許可하엿다 하면 馬場의 病이 快蘇하면 武本은 또 廢業식힐 것으로 許可하엿다 하면 넘우나 跌屈한 方針이라 하야 여러가지 物論이 藉藉하다고 (固城)

社友募集에 努力

高原農民社支部에서

高原에서는 朝鮮農民社支部를 設置하고 社友募集으로 當地各社會有志가 各自出動하엿다는데 臨時事務所는 當地本報支局이라 하며 農民諸氏는 多數申請하기를 바란다고 (高原)

不公平한 蠶繭等級鑑定

實物品質보다 顔面만 본다고

無理한 長城郡日人蠶業技手

全南長城郡廳蠶業係에는 春間부터 말성이 만하야서 長城養蠶家로 組織된 蠶友會會員中 日本人들은 郡守에게 四五次 質問을 하엿스나 解決이 되지 못하엿다 하며 去七日에 朝鮮人會員四人이 郡守를 同郡廳에 訪問하고 交涉하엿다는데 그 內容을 探聞한 바에 依하면 蠶業技手 日本人某는 蠶繭販賣時에 等級을 不公平하게 하야서 生産者에게 莫大한 損害가 잇섯든 故이라는데 道廳內規에 七十二『파ー센트』以上이면 一等이 되도록 하라 함에도 不拘하고 長城에서는 六十五『파ー센트』가 普通最高이엿다 하며 長城郡守의 蠶繭은 一等이 되엿다는데 同一한 蠶繭을 他人이 가지고 간즉 低等이 되엿스니 長城蠶業技手의 等級 **制定** 은 사람을 보와 制定하는 것이오 蠶繭을 보와 하는 것이 아니니 이러한 不公平한 技手는 보내달라는 要求를 하엿다는데 이케 그 交涉顚末을 듯건대 郡守南延祿氏는 交涉하러 간 蠶友會員에게 말하되 蠶業係技手는 不公平한 것이 아니오 日本人蠶友會員과 蠶業技手와 感情問題로서 排斥하는 것인즉 朝鮮人側에서는 되드지 안는 것이 조타하며 萬一 問題가 擴大되면 道廳에서 長城人民을 미워하야 더 留任식히드라도 엇지할 道理가 업는 일이라고 하엿다 하며 長城에는 蠶業의 發展이 他郡에 比例가 업슬 만큼 進步하야 가는 中이니 道廳에 報告하야 相當한 技術者를 任命하도록 交涉하깃다고 말하엿다는데 一般養蠶家에서는 不平이 적지 아니함으로 問題는 더욱 擴張되리라는 말도 잇다고 (長城)

自由鍾

◇投稿規定◇ 一行十四字十行以內 本社名氏名及住所를 明記 ◇「自由鍾」이라 朱書를 要함 ◇投稿歡迎◇

咸南勞總과 東北勞聯의 軋轢

◇요새 우리 朝鮮의 一般運動界는 混亂이 度를 極하엿다 北風會와 서울靑年會의 對立 戰勞總의 分裂 勞働黨의 合同非合同戰等의 委員問題…等 그치 뜻잇는 者의 눈물을 흘니게 하는 것이다 그러고 이것은 單히 京城內에서만 問題된 것이 아니라 그 波動이 널리 全朝鮮에 밋치고 더나아가서는 海外에까지도 이러한 分派의 烙印이 宛然히 찍혀잇는 터이다

◇그러한 中에도 最近에 가장 새삼스럽게 問題가 되여잇는 것은 咸興에서 發起한 咸南勞農總聯盟과 元山에서 發起한 東北勞働總聯盟과의 사이에 생긴 軋轢이다 그리하야 相互間에 反駁文의 交換이 一種의 創立勞頭의 新事業이 되여잇다

◇이케 그 反駁文의 各自主張을 보면 咸南側에서는 勞農總聯盟이 이미 發起되엿슴에도 不拘하고 東北勞聯을 發起함은 野心을 免치 못할 行動이고 咸南勞農聯盟이 된 以上에는 東北勞聯은 發起하며 二重으로 統一連絡할 必要가 無하며 더욱히 長形의 地域上 關係로 連絡과 集會가 不便하다는 것이고 東北側에서는 三道의 各小作團體를 除外한 純勞働聯盟과는 制異하며 咸南各地에 散在한 勞農團體의 統一連絡보다 東北各地에 散在한 勞働團體의 統一連絡을 하다는 그리고 長形의 地域上 關係로 말하면 海陸의 交通이 發達된 現下二十世紀의 일이니 吾人은 이에 執是執非를 判斷하려 하지 안노라

◇못느니 朝鮮의 社會運動者 諸君! 諸君은 무슨 까닭으로 이러케 차흠으로써 일삼으려는가 諸君은 相互間의 主義가 틀닌다 하야 그리하는가, 다시 말하노니 하나는 現制度를 ○認하는데 하나는 그것을 是認하는 外닭인가 或은 하나는 甲의 方面으로 建設하려 하고 하나는 乙의 方面으로 建設하려 하는 外닭인가? 아니다! 諸君의 차흠는 理由가 이것이 아님을 나는 아노니 오히려 말하기도 醜劣하거니와 自家의 權力確立 個人의 名譽慾得 그것이 君等의 차흠의 全體가 아닌가?

◇爲! 諸君이 나의 말한 것 以外의 무슨 다른 理由가 잇슬는지 明言할 수 잇느냐? 그러치 안타면 諸君의 行爲는 民衆의 피로써 自己의 身을 살지게 하는 特權階級의 그것과 무엇이 다르랴? 오히려 彼等의 罪惡은 正面으로나 밧거니와 君等은 羊皮로써 눈을 감초고 그만큼 民衆에게는 더욱 凶惡한 敵이 될 것이다

◇諸君! 諸君은 무엇이 되려느냐? 民衆의 敵이냐? 아니면 民衆의 동무냐? 態度를 鮮明하라? 그리고 일을 또한 그러케 하라 이 吾人의 切企하는 바이다 (激而子)

清富青年聯盟

去六日圓滿히 創立

成北清津에 잇는 清津青年會、女子相愛會、共榮青年會 三個團體의 主催로 創立準備中이든 清津富寧青年聯盟創立總會는 去六日午前九時부터 八個團體의 代表二十名이 清津共榮館에 모이여 南潤九氏 司會로 開催하엿다는데 順序에 依하야 經過報告가 잇슨 後 執行委員長李震赫君과 清津有志金昌奎君의 簡明한 說辭가 잇고 仍히 檢查委員及執行委員을 選擧한 뒤에 宣言綱領及規約의 制定은 執行委員에게 一任하고 午前十一時에 無事히 閉會한 바 檢查委員及執行委員의 氏名은 아래와 갓다고 (鏡城)

◇檢查委員 南潤九、張燾
◇執行委員 鄭石道、李信子、金永哲、尹錫弼、金河昌、金正來、劉龍洪、申濟岳

臨時大會 咸北清津에서 去六日에 清富青年聯盟創立한 것은 別項報道와 갓거니와 同日午前十一時부터 清津共榮館에서 張麗氏司會下에 第一回臨時大會를 開催하고 左記事項을 決議한 後 同日午後五時三十分에 無事히 閉會하엿다고 (鏡城)

◇決議事項
一、青年運動에 關한 件
　一、青年團體組織問題
　二、青年敎養問題
　三、異類團體에 關한 問題
二、社會運動에 關한 件
　一、農民運動
　二、女性運動
　三、海上勞働運動
　四、少年運動
　五、宗敎問題
　六、衡平運動
三、其他問題에 關한 件

青友親睦組織

元山에서

元山에 居住하는 北青人으로서 相扶相助를 目的하고 發起한 青友親睦會創立總會는 지난 七日下午七時부터 中里二洞崔長億氏宅에서 開하고 規則通過와 敎育及慈善事業獎勵에 對한 討議가 잇슨 後 閉會하엿다는데 一般任員은 左와 갓치 選定하엿다고 (元山)

會長 崔正周 副會長 崔長億
總務 全龍奎 幹事 李希模 林虎英 孫洪八 李蕙卿 李京洙

晉州體育會

去七日에 發起

慶南晉州에서는 去七日下午七時에 本報晉州支局內에서 有志青年 金贊成氏外九人의 發起로 金秉宙氏의 司會下에 晉州體育會를 發起하엿다는데 여러가지 事項을 討議한 後 創立總會는 來二十日午後七時에 本報晉州支局에 開催할 터이며 規約制定委員으로 金贊成、李鍾天、吳泉圭、金秉宙 四氏가 被選되엿다고 (晉州)

年產額四十萬圓

河東地方海苔生產

慶南河東郡南面葛四里에 잇는 河東海苔漁業組合은 大正四年度에 日本人 멧사람과 漁業者間에 協議하야 任意로 組合을 組織하고 그 製造改良에 努力한 結果 成績이 良好함으로 그 製造品을 大阪、神戶、東京等地에 移出하야 만흔 歡迎을 바다 왓슴으로 그들 日本人은 暗中飛躍으로 漸漸 自己들의 利益을 圖謀하려 할 뿐 아니라 河東郡廳에서도 隱然히 그들의 事業을 暗助하려는 計劃이 잇섯다는데 그時 南面面長으로 잇든 全宅鉉氏가 이것을 알고 漁業民을 **團結** 하는 同時에 道廳과 總督府에 累次交涉한 結果 大正十一年七月에 그 組合을 法人으로 變更하고 全宅鉉氏가 理事가 되야 銳意로 事業을 進捗하는 同時에 販路를 擴張하여 왓스나 不幸히 大正十二、三年은 海苔의 凶作으로 事業進展에 多少困難됨에 不拘하고 漁業區域을 擴張하야 南面、金陽面、古田面、河東面을 合하야 組合員이 一千二百五十餘人에 達하고 年產額은 改良二十萬圓이 現今四十萬圓이 되며 **製品** 은 專門家의 檢查員을 置하야 三期로 分하야 檢査決定케 하고 販賣方法은 競爭入札을 行하다는데 大阪、釜山、東京、名古屋、神戶其他 朝鮮內地의 商人이 多數히 來札하며 今年의 價格은 一等二圓二十五錢(百枚價格) 二等一圓九十錢으로 六等七十二錢外지이오 不合格品은 一圓八錢이라 하며 同組合의 特性은 新朝鮮人으로서 組織되엇스며 數年前에 居住하는 日本人은 ……하고 잇섯는 것이오 一般漁者의 利益本位로 事業經營의 目標를 삼는다고 (晉州)

七個條決議

順天農聯總會에서

全南順天農民聯合會에서는 去七日午後三時에 同會館에 臨時總會를 開催하엿다는데 各面代議員三十餘人이 出席하야 朴炳斗氏의 開會辭가 잇슨 後 臨時執行委員으로 李榮珉、張金洙、朴炳斗三氏가 被選되여 李榮珉氏의 前會錄朗讀과 聯合會委員及各面代議員의 經過狀況報告가 有한 後 中央執行委員 徐丙冀、梁性奎、金晩洙三氏의 辭任後代에 安兌燮、權炳郁、梁會錫三氏가 補選되고 左記七個條를 討議한 後 萬歲三唱으로 盛況裏에 閉會하엿다고 (順天)

討議事項
一、朝鮮勞農總同盟과 勞總、農總으로 分立한 에 關한 件
一、海倉、西面小作料不納同盟에 關한 件
一、朝鮮勞總及本組合의 負擔金에 關한 件
一、會館修築에 關한 件
一、各面產業組合設置에 關한 件
一、普通地主名簿作成에 關한 件
一、各面會長整理에 關한 件

光陽青年革新

委員長制로

全南光陽青年會에서는 本會의 宿題이든 年齡制限의 實施된 後 지난 六日午後一時에 革新總會를 本會館에서 開催하고 臨時議長金鍾氏 司會下에 諸般事項을 決議하엿다는데 其中重要한 變革은 從來의 無頭政治이든 委員制를 委員長制로 하엿스며 따라서 各部門에도 一大變革을 이르키며 今後로는 敏速한 活動으로 會務를 執行할 作定이라는데 被選된 任員의 氏名은 如左하다고 (光陽)

委員長 鄭炳和、常務委員 金銓、會計監査 南炳洙、金敬默、內務部員 金昌鎬、敎養部員 鄭泰璂、調査部員 朴準國、宣傳部員 金泳鎬

新茅青年創立

去七日總會

安邊郡新茅面은 元來僻鄕의 農村으로 現代風潮에 여러가지로 落伍됨을 遺憾으로 思하던 바 有志朱鍾欽外諸氏의 發起로 지난 七日上午十二時 同面中漁池里私塾에서 八十餘名會合으로 臨時座長黃相熙司會로 新茅青年創立總會가 開催되엿다는데 咸南青聯、元山靑年、安邊……上同盟、新高山、錦湖青年、安邊……

利川青年巡講

去六日長湖院에서

京畿道利川青年會主催巡廻講演隊는 지난 六日下午七時에 長湖院에서 [illegible]

會青緊急總會

沈得河에 對抗코저

[illegible]

臨迫한 關西記者大會

來十二日安州에서 記者團主催로 開催될 關西記者大會準備는 着着進行中인 바 申請期限前日卽九日外지에 밧은 申請이 數十個所에 達하야 江界、泰川等地에서까지 申請하는 이 잇고 參加할 地方으로만 數十餘個所에 達하야 大盛況을 呈하리라고 觀測한다 하며 今般大會役員은 如左하다고

一、會場設備 鄭應璿、安珍植
一、旅館案內 崔芝鉉、玄奎弘、吳秉亮
一、開會準備 許燗、金偉濟
一、參加手續取扱 金秉杰

大會經費 今般開催될 關西記者大會經費에 對하야는 開催地에 所在한 東亞、朝鮮、時代 三支局이 負擔하기로 去八日夜三支局長會를 東亞日報支局에서 開하고 分擔하기로 하엿다 하며 指定旅館은 關西、百祥兩旅館이라고

社會側歡迎

來十二日開催되는 關西記者大會에 對하야 安州社會有志 金秉奎、黃敏謙、禹弼舜等諸氏의 發起로 歡迎會準備를 한다고 (安州)

斤量을 欺瞞

組合員無識을 奇貨로

莞島棉組役員이

全南莞島郡新智面棉花共同販賣所에서는 近來奇怪한 非行이 發生하엿다는데 그 內容을 듯건대 去月二十八日은 同販賣所의 販賣日이 는바 所謂組合員의 福利를 爲하야 ……

學年延長運動

西鍾公普에서

黃海道鳳山郡西鍾公立普通學校는 大正十年度에 創設되야 四學年制로 敎授中이든바 西鍾面은 勿論 他面外지 地域上關係로 兒童도 多數임으로 六年制로 延長할 必要가 잇다 하야 去月二十九日同校內에서 打合會를 開催하고 校長以下 學父兄 粱炳鶴、金熙洙諸氏와 面內有志人士 多數가 參席하야 滿場一致로 學年延長을 決議하고 一方으로 寄附金募集에 着手하는 同時에 當局에 對하야 學年延長運動을 開始하야서 그 目的이 貫徹되도록 極力活動할 것을 約束하고 閉會하엿다고 (載寧)

藥材委託組合

大邱에서 組織

例年大邱令市의 開市에는 大部分의 藥材小商들의 賣買에 對한 仲介의 不正한 弊端이 만하 令市振興上 一大問題가 되여 왓는바 昨年에 이르러 仲介組合이 設立되야 次次弊端을 減하야 오든바 今年令市에는 一層더 鞏固히 하기 爲하야 漢藥商組合에서 仲介組合을 直營케 되는 한편 藥材及物産委託業者中 有力한 安極洪、洪雲溶、李圭煥、朴鍾元等四氏의 發起로 藥材及物産委託組合을 設立하엿다는데 이로써 各市藥材賣買에 對한 不正한 弊端은 根滅되리라고 (大邱)

『불조심』宣傳

汶山青年會서

坡州郡臨津面汶山青年會에서는 去四日에 青年會長李錫浩氏以下 各役員이 熱誠으로 『불조심』이라는 宣傳『비라』를 一般住民에게 配付하엿다는데 住民과 官公署에서는 甚히 好感한다고 (金村)

延安에 狂犬出現

黃海道延安에는 狂犬이 橫行한다는데 近日 ……

珍南學校後援

去七日에 創立

[illegible] (木浦)

元川小作委員會

[illegible]

安城金融經濟

十一月中概況

關西銀行安城支店調査에 依하건대 十一月中 當地 金融經濟概況은 同月一日 京畿鐵道天安、安城間 新線營業이 開始되야 從來平澤方面으로 馬車로서 搬出되든 穀物及移入品은 殆히 全部가 鐵道便으로 搬出되엿스나 元來鐵道利用에 對하야 地方人士의 理解가 不充分한 것과 從來平澤商人의 商圈內에 在하든 關係上 若干間 多少의 荷物은 ……安城驛發着荷物은 籾、正租十四車、安米十八車、牛皮八千斤이오 移入品은 綿布、鹽、石炭、木材、雜貨、石油、煙草等 數十車에 達하며 取扱額이 頗히 巨大하야 最初月의 鐵道營業成績으로는 甚히 良好하다 ……

◇地方短評◇

[illegible]

海産物移出高

客月中元山서

[illegible]

洋穀移入激增

客月中元山서

[illegible]

穀物檢査成績

客月中咸南道

[illegible]

湖南地方

[illegible]

東北地方

[illegible]

嶺南地方

[illegible]

關西地方

[illegible]

社告

一、名稱 慈仁分局
一、位置 慈仁邑內
一、區域 慈仁面一圓 南山面 龍城
一、職氏名 分局長 崔盤石
記者 黃雨性
同 崔達奭
同 黃珍洪
同 金秉河
同 金容涉

東亞日報 慶州支局 白

記者 申光熙
外交員 金時睦

東亞日報 靑松分局 白

外交員 黃鳳雲

東亞日報 延安支局 白

府內小下水溝卄六萬間 來年부터擴張工事實施

三十八萬圓의豫算을가지고 사개년간의계속사업으로실시한다

◇其中百萬圓은北部에서負擔

[illegible]

◇第一年工事 [illegible]

◇第二年工事 [illegible]

◇第三年工事 [illegible]

◇第四年工事 [illegible]

負擔額每間四圓

북부공대가수익햇다고

[illegible]

新總督府前電車複線 來年正月로竣成

총독부가이사함과동시에

[illegible]

中國人漁業者와大亂鬪

됴선인어부들

[illegible]

屍體一個發見

고산의난파선

[illegible]

貧民은免除

本府衛生會長談

[illegible]

演藝

地上最幸福 스타生活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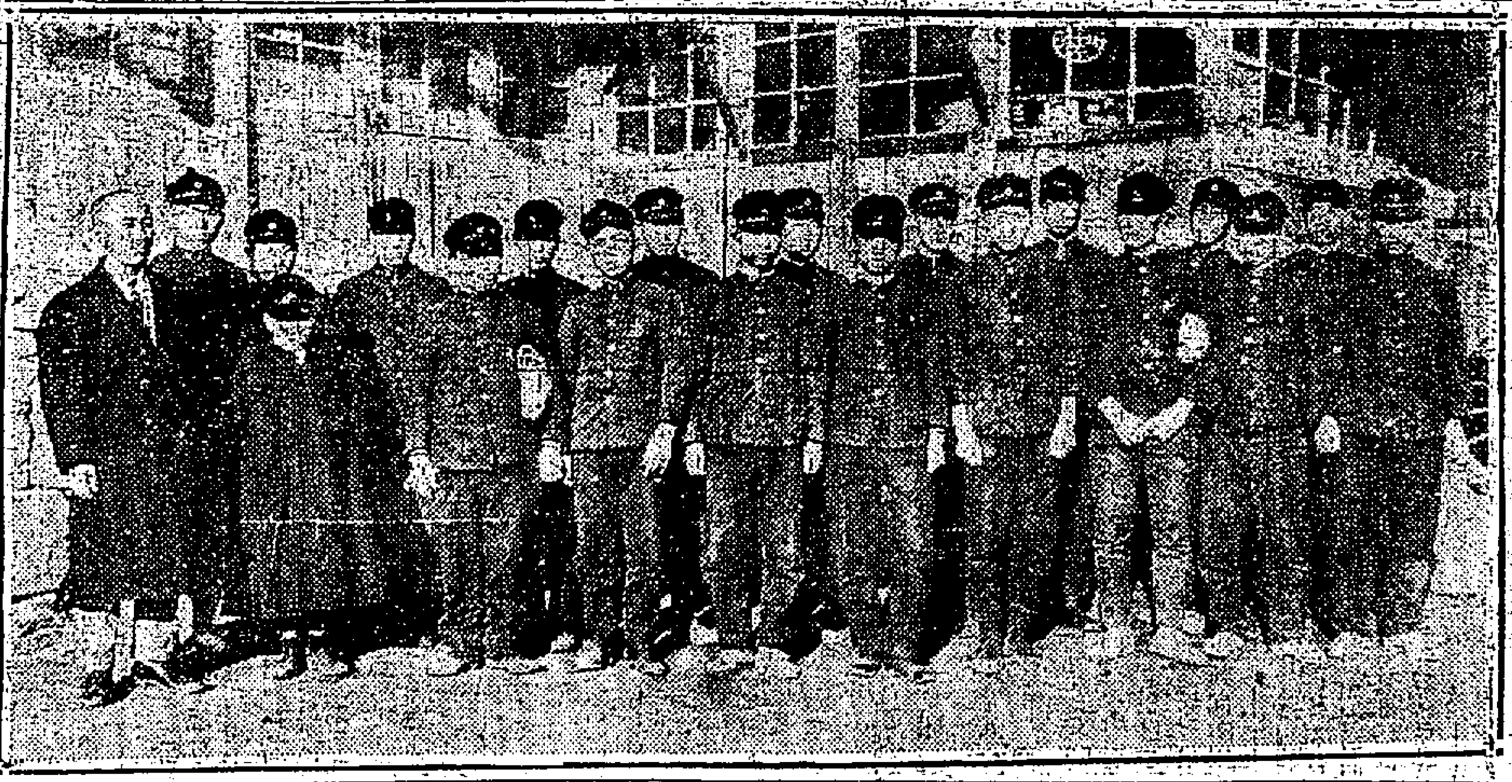
永遠한「스타」가업는 映畵界스타

빠렌치노氏感想錄

[illegible]

日本映畵界名女優

[illegible]



儆新校生本社見學

[illegible]

同盟戰線우에서 團結을益鞏固케

간부한명은검속되엿다

木浦自由勞動者罷業事件

[illegible]

應援團急派

[illegible]

勞働靑年도應援

[illegible]

趙氏無事放免

[illegible]

兒孩치인것보고도 밀車를依然前進

아해는팔이부러지고중상 방경인부들의횡포한행동

[illegible]

大倧敎人大會

십삼일에개최

[illegible]

◉天氣豫報◉

北西風晴一時曇

活辯學校

東京에創立

[illegible]

◇朝鮮劇場◇ 本報讀者優待日 優待券欄外에 十二月十…一日間

鍾路署大活動

[illegible]

◇祝東亞日報原州支局設置◇

原州郡守 李東鎭

原州公立普通學校職員一同

朝鮮日報原州支局

原州邑下洞里 金演昇

衡平社原州支社

衡平社橫城分社

原州邑下洞里 京原自働車部

原州邑下洞里 和洋菓子 御料理 東星製菓店 主 李宣器

原州郡板富面丹邱里 原露館 主 金壽達

原州邑花川里 元乃鉉

原州板富面丹邱里 張在彦

原州邑上洞里 姜秉勳

原州邑上洞里 陰鍾埴

原州邑下洞里 朴般

原州邑上洞里 朝鮮料理業 永興館

原州邑上洞里 元世憲

原州邑下洞里 朴春培

原州洞上洞里 靑年理髮舘 趙南洙

原州邑上洞里 趙用伊

原州邑下洞里 司法代書人 沈宜達

原州邑下洞里 金枝培

原州邑下洞里 朴鐵鍋

原州邑下洞里 原昌商會

洪忠善

李有泰

原州邑上洞里 李敬善

原州邑下洞里 米穀商店 李秉鍵

原州邑上洞里 司法代書人 鄭益澈

原州邑下洞里 司法代書人 南爽祐

原州邑上洞里 張汝霖

原州郡神林面事務所 面長 鄭昌謨

方漢龍 方漢相

丁奎顯

禹在善

原州郡建登面事務所一同

文幕公立普通學校

文幕金融組合

李相鎭

一農商會文幕支店

朴鍾大

閔孝植

東亞日報讀者優待 十二月十二日 一枚一人限 券

朝鮮劇場 第十二月五日士曜日 特別大興行 東半藝術團大公演

優美館

時事週報

豪傑마지스트

梅毒 淋疾 專門診療 仁壽堂醫院

手足업는人에게急告

經濟時論

商人과顧客(二)

不意不心之中에突然히店口에드러서는顧客에對하야 엇더케하야써好感을주고好印像을가함에對하야는方法을말할수도업고事實을形容할수도업다 할수록親切하게하고正直하게하여야될것이나 그손님이자조오는손님인지 처음으로차자오는손님인지 年少한손님인지 年長한손님인지 身分과地位가엇더한것인지를 보아 그에맛게親切하고 程度에맛게正直하여야된다 엇지하여그러나하면 한부로親切한態度를보이고 正直한態度를表하다가는도리혀손님의感情을害하는수가잇슬뿐아니라 [illegible]

◇ 不意不心之中에突然히店口에드러서는손님에게快感을주고 조흔印像을주고 商店의信用을엇게하는[illegible]

感하게할方法은 그와가치어려운것이다 具體的方法을말할수업다 [illegible] 商品의整頓이라든지 店員의言語와 態度와衣服의如何라든가 店員의容貌의如何라든가 하는것이 顧客에게快感과好印像을주며 주지못하는데 大端한關係가잇다 그럼으로 商品은恒常整頓되고 店員의衣服은淸潔하여야할것이고 店員의容貌는端麗한容貌를假色하라든가 化粧하라는것이아니다 自然한容貌에 醜하지안케하라는것이다 [illegible]

◇ 其中에도가장어려운것이 突然히마주치는손님에게 엇더한行色을뵈이고 엇더한言語로 初人事를할가하는 것이다 이것이가장하기어려운 問題이다 [illegible] 初人事를 하는사람이잇다 地方의人事는 都市의人事와달러 [illegible] (S·U生)

全鮮金組業績

貸出은二百二十五萬圓激增

總督府理財課調査十一月末現在朝鮮內金融組合의預金並貸出成績은前者에在하야는四千九百五十四萬[illegible]圓 後者는六千[illegible]萬[illegible]圓인바 前月末現在에比하면貸出은二百二十五萬[illegible]圓의增加이더라

道別	預金	貸出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移入地別鮮米移出

大阪이首位

穀物聯合會調査에依하면昨年十一月以來今年十月外지의朝鮮米移出量에對한日本各移入地別은如左하더라(單位石)

外國鹽輸入不振

供給의不足은約一億萬斤

專賣局調査에依한十月末朝鮮內輸移入鹽은一億九千五百八十萬七千二百二十四斤인데此를前年同期의二億四千四百六十一萬九百七十六斤에比較할時는四千八百八十萬三千餘斤의減少이오 [illegible]

爲替昂騰과鐵類時勢

保護時勢消滅

金物中에도主要한鋼鐵類는製鐵保護關稅引上으로因하야景氣가良好하야日本市場에서는取引도不少한活況을呈하고 [illegible]

奉天票反落

本月에入하야百九十四五圓을保合하든奉天票는九日百九十七圓十錢(期近)百九十九圓(現物)로三圓假量反落되엿다더라

爲替高價

[illegible]

英銀利上은準備關係

朝鮮財界別無影響

英蘭銀行의利子引上은金準備의增減을目標로하고行한것인대 [illegible]

奉天軍食糧注文

群山精米供給

大田米穀商某氏는先般來奉天方面에對하야秘密히活躍한다는바 [illegible]

中國方面戰時保險

實施決定

大阪海上保險業者는各地中國貿易業者의希望에依하야戰時保險率을適用하기로決定한바 [illegible]

無味乾燥한年末時勢

今月도新市發會以後의高價三十一圓八十錢에서보면百二十丁이나低落하엿스니 [illegible]

大臺를割乎否

當地今朝初付卅圓五十錢은前月低價인五十四錢을흘낏하하破하엿다 [illegible]

各店俵合

[illegible]

期米 (仁川 十日)

前場低落

後場反撥

後場止跡氣配

日本出兵은米價無關乎

中國動亂의標的인奉天의張作霖이 [illegible]

米豆餘響

◇阪地의今朝初付三十四圓五十六錢과當地三十四圓五十錢은 [illegible]

仁川正米標準時勢

大阪期米

東京期米

兵庫期米

下關期米

桑名期米

各地期米高低

◎各地穀物

株式 (京取 九日)

前場寂寞

警戒氣分濃厚

後場奔騰

鍾新關門突破

長期諸株乘換

小波瀾裡過年?

鍾新獨底强

京取深押人氣

十八圓以下出現說

京取短期取引

後場諸株步調

大阪長期取引

大阪短期取引

東京現株前場

◎大阪三品

◎大阪砂糖

◎橫濱生絲

◎京城綿絲布

◎京城手形交換

◎朝鮮銀行券

◎日本銀行券

◎日本金利

◎海外經濟

四市場大納會

今月二十八日

釜山穀物市場

洋灰好轉

十月末無盡業績

質疑應答

【問】 [illegible]

【答】 [illegible]

小說 春香 (第七十三回)

이사 (九)

【밥이나먹어볼까】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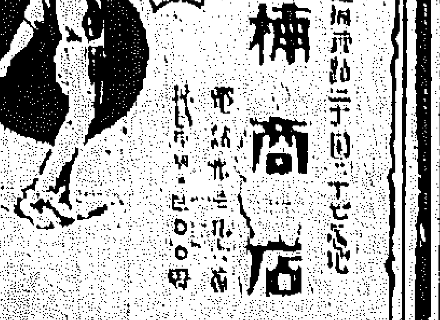
感氣도身熱도 대번에 逃亡가는

지속丑의 가리印의 ヘブリン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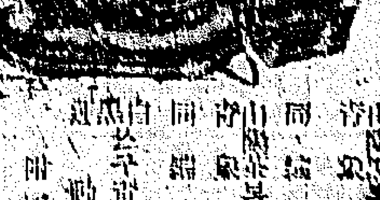
大阪 [illegible] 天眞堂株式會社

土金特別高價買入

京城府明治町壹丁目 德力本店 京城出張所



庭球用 ラケツト 各種 [illegible] 楠商店



福壽短靴大宣傳

海昌社洋靴部